

“인성교육에는 사성제 · 팔정도 가 최고예요”



김남선 교사

한줄기 소나기가 시원하게 쏟아지고 나니 하늘과 세상이 말끔해진 느낌이다. 하늘은 아직도 미진한 듯 먼 북소리와도 같은 천둥소리를 낸다. 강현중학교는 아늑한 산을 끼고 있으며 수목이 많아 싱그러웠다.

해마다 12만 명의 아이들이 가솔을 하고 6~7만 명의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공교육이 무너진 지는 이미 오래라고 하지만 오로지 아이들을 위한 참교육 열정을 바치는 이가 있다고 해서, 또 역사를 가르치면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한 마디를 꼭 일러준다는 선생님이 있기에 강현중학교를 찾았다.

생활 한복을 곁에 차려 입은 김남선 선생님은 한 해가 모자라는 육신이라는데 얼굴이 소녀처럼 맑다. 학교 수업만으로도 벽찰 텐데, 그동안 펴낸 책이 15권이나 된다. <등불의 역사> <배우며 가르치며> <인도에서 온 편지> <5박6일 명상체험기> <엄마, 여자도 남자는 어떻게 달라요> <행복을 가꾸는 교실>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즐거움 국사 32강> 등 목록을 열거하기도 힘들다. 김남선씨는 학교 수업 외에도 또 다른 여러 가지 일을 벌이고 도맡아 하고 있다. 1992년부터 2003년까지 십여 년의 세월동안 참교육상담소 소장을 맡아 활동했으며, 2000년부터 ‘교육전략21’ 프로그램 연구위원으로 일하는데 시간을 아끼지 않는다. 그리고 교사들의 마음공부를 위한 ‘마음자람 메카’ 인터넷 카페지기이기도 하다. 얼마 전에는 교사들이 모여 마음공부를 할 수 있는 아담한 공간 ‘마음자람원’을 개원했다.

“저는 교사들의 정신이 건강하고 행복감으로 충만해져 있어야 가르치는 학생들에게도 그 정신과 에너지가 전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사들의 마음 다스리기와 깨침을 위한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나서요.”

일급정교사 자격증연수가 매년 서울대에서 열리는데 그때 천여 명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마음공부를 강의해 온지도 십년의 세월이 지났다. 김남선씨는 선생님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교육계에 널리 알려져 있다.

불교와 어떻게 인연을 맺었는지 궁금하다고 했더니 “학생들에게 지식 말고도 ‘참인간’이 되는 길을 안내해주고 싶었고 전인적인 교육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라 했다. 그러한 가르침을 전달하는 데는 불교사상이 가장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불교연구반’을 만들었다. 김남선씨는 “부처님의 사성제와 팔정도는 완벽한 진리이기에 이것만 완전하게 전달할 수 있다면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김남선씨는 “역사(歷史)의 사(史)자는 사람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잡고 있는 것을 상징한다”면서 역사를 가르치는 교사는 실상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전달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과거를 참되게 부활시킬 수 있어야 하며, 새로운 미래를 탄생시키는 시금석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가능한 모든 역사적 사실을 학생들의 현실로 가지고 와서 자신을 살피는 공부거리로 삼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자기 삶의

받고 있다는 것이 아이들에게 미안한 생각이 든다. 김남선씨가 학생들에게 또 강조하는 것이 인사에절이다. 수업시작 전에 ‘차렷! 경례!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하는데 여기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

“인사(人事)는 ‘사람의 일’이라는 뜻인데, 사람이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사람다운을 잘 나타내주는 일이 인사입니다. 그리고 차렷은 ‘정신 차려라’는 의미인데, 사람을 대하거나 일을 대할 때 깨어서 집중하려는 것이죠. 경례(敬禮)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공경하는 마음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부모, 형제, 일가친척, 친구 등 사람들과 조화로운 관계를 맺을 때 기쁨이 피어나고 행복감이 증폭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김남선씨는 불교인들을 ‘부처님 일생 배우기’부터 시작했기에, 이런저런 경험을 바탕으로 청소년 대상 ‘부처님의 일대기를 통한 심성 수련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프로그램을 처음 활용한 곳이 2005년 괴산 다보사 청소년 명상캠프다. 프로그램을 제대로 만들고자 한국불교연구원에서 선사상을 공부하기도 했다. 청소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늘 생각하는 김남선씨 눈에는 나쁜 어른은 있어도 나쁜 아이는 없었다. “나쁜 아이들이라고 하지만 그 배경에는 이혼한 부모를 비롯한 문제의 부모들이 있어요. 아이들은 자신의 삶을 꾸려가기도 힘든데 부모의 욕심과 희망사항을 짐 지워서는 안 돼요. 아이들 스스로가 자신의 길을 열어가길 수 있도록 지켜봐주는 것이 부모의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 “사람은 자신이 꿈꾸는 대로 또 자신이 믿는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이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나 자신에 대한 긍정의 강한 믿음이 성공의 열쇠”임을 강조한다. 이것 또한 지후(知足)의 대표자인 석가모니 부처님을 알게 되면서 배운 것이란다.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마음자람원’을 좀 더 활성화해 많은 교사들과 영성교육을 나누고 싶다고 했다. “나는 누구인가” 이 허두만 해결되면 자신의 많은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된다는 김남선씨의 한 마디를 가슴에 담고 교정을 나왔습니다.

글 · 사진·문운정(수필가 · 본지 논설위원)

용타 스님 ‘당신은 누구인가’ 물음에 ‘나’ 보는 시각 달라져

참교육상담소·‘교육전략21’ 연구위원·‘마음자람원’ 등 활동

“처음엔 불교를 교리적으로 접근했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수행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천안의 호두마을에서 위빠사나 수행을 시작했고, 방학 때는 집중수행에 들어갔어요. 수행을 하면서 만난 분들 중에 용타 스님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어느 수련회에서 용타 스님께서 ‘당신은 누구입니까’라는 물음을 삼십 분 정도 파고 들어가는데 나중에는 눈앞이 깜깜해지는 것이 숨이 막혀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나를 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졌을 뿐 아니라 ‘나’는 또 다른 ‘나’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어요.”

김남선씨는 수업시작 전에 3분 명상을 하는데, 일 년이 지나고 보면 아이들이 참으로 많이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단다. ‘지금도 벗님이라 부르며 장난을 걸어오는 아이들을 만나면 온 몸이 기쁨으로 차오른다’는 김남선씨는 새벽 5시엔 일어나 1시간동안 오체투지를 하고 30분 정도 명상을 하고나서 출근 준비를 한다. 집에서 학교까지 걷기 수행인 경행(經行)을 하다가 보면 1시간도 금방이란다.

창조자요 또한 역사 발전의 주체자로 안내하고 싶어 수업시간에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자기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이며, 이 우주의 주인공 또한 ‘나’임을 깨닫게 되죠.”

김남선씨는 신라 화랑도의 ‘세속오계(世俗五戒)’를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자신이 지켜야 할 오계” “가정에서 지켜야 할 오계” “자식으로서 지켜야 할 오계” 등을 스스로 작성해보라고 한다. 역사 시간을 통해 자신의 삶 또한 역사의 한 단면임을 알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을 경계하고 조율해나가는 것까지도 배우게 된다.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다른 뜻이 있어 온 것인데, 가장 창의력이 왕성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시대 때 알기식 교육으로 멍드는 것이 참으로 가슴 아파요. 알기식 교육은 아이들에게서 창의력과 자유의지를 빼앗아 버립니다.”

알기식 교육에 고통받던 어른들이 만든 제도로 아이들이 고통

실물크기 (소) 3.5 × 5cm
(중) 5 × 7cm

금강 전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화경요품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 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 / 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10mm×12mm 55,000원
10mm×10mm×12mm 65,000원
12mm×10mm×12mm 85,000원
흑단무늬목염주는 가련이 재현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 265×16×16cm 138,000원
→ 할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있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원을 이룸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술시에도 사용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하신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기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양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053-12-125418 강현영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복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물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차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옥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생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마다 작용하고 편안하게 얹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 차가운
-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형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들에게서 체형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신약형 의뢰기기 05-0626호 인증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하리만큼 편안하게 하여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썩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썩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썩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가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문의전화 : 금강의뢰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현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